

한중 양국 해군·공군부대간 '핫라인' 설치 합의

北 급변사태 등 공동 대처

공동 해상수색구조 훈련도

한국과 중국이 10일 군사 핫라인 개통 문제를 매듭지은 것은 양국이 한 차원 높은 군사교류협력 관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회담에서 양국 해·공군간 핫라인 설치에 합의하고 해상수색구조 협정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김장수 국방장관이 이날 23일~26일 중국을 방문해 차오강현(曹剛川) 중국 국방부장(장관)과 회담하고 핫라인 설치부대와 해상수색구조 훈련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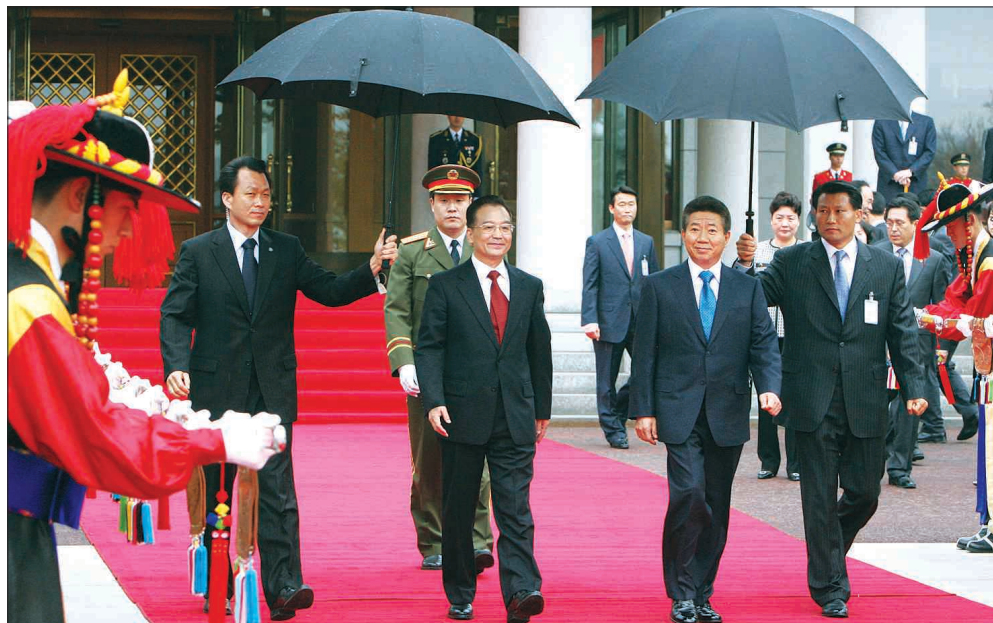
서로 다른 나라가 군사 핫라인을 설치하고 공동 해상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군사분야에서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군사 핫라인이 설치될 곳은 우리 측에서 서해 합대사령부와 공군 방공부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서해상에서 양국 합정군 우발적인 충돌을 피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합대사령부간 핫라인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서해상에서 중국 잠수함과 합정함들의 작전 횡수와 반경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어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서해 합대사령부와 중국측 합대사령부간 핫라인이 설치되면 NLL 해상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매년 4~6월 꽃게잡이 철만 되면 NLL 해상에 500여척 가량 배들이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활동으로 남북이 무력충돌한 사례가 두 차례나 있다.

양국 해군간 핫라인으로 NLL 해상에서의 불법조



노무현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시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 정보를 신속히 교환한다면 중국측도 불법조업 문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서해 상공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지나면 1~2분 내로 인천공항을 향하는 민항기와 조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국 군사 핫라인 설치에 북한의 급변사태 및 우발사태 때 양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외교안보연구원의 김성환 교수는 "양국의 해·공군 핫라인이 작동한다는 것은 북한의 급변사태 때 중국의 자동개입이란 대안제를 다소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반도 평화유지와 국제적 충돌, 북한 급변사태 등 포괄적 평화위협 사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유도할 수 있는 정치·군사적 메카니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원 총리는 또 김포~상하이 홍차오(虹橋) 공항간 셔틀항공기 운항 문제에 대해 "항공기 운항은 한국 정부와 잘 협의해서 두 지역간 전세계 화물 노선을 개설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원자바오 "한·중 무비자 검토 지시"

방한중인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10일 한중간 무비자 문제와 관련, "중국 정부 내 관계 당국에 잘 연구토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한중 우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 양국간 방문객 수가 연간 500만명을 넘고 있어 점진적으로 무비자 입국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견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원 총리는 또 김포~상하이 홍차오(虹橋) 공항간 셔틀항공기 운항 문제에 대해 "항공기 운항은 한국 정부와 잘 협의해서 두 지역간 전세계 화물 노선을 개설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미 FTA시대 위기의 전남농업

친환경 농업이 살길이다

인증면적 확대·판로 구축을

우리 농업은 갈수록 힘이 빠지고 있는 '정부의 정책적 보호'라는 그늘을 벗어나서 '시장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거스를 수 없는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다.

품목별 개별농가의 생산과 판매능력에 의존해왔던 농업의 성장동력은 이미 설자리를 잃어버렸다.

한미 FTA 타결로 무차별 포화를 맞을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을 견인해나갈 농업 성장동력은 관행적인 품목 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 새로운 농업시스템, 곧 친환경 농업에서 찾아야 한다.

총생산량의 2.7% 불과

증산 위주의 농업생산질서를 지양하는 대신, 친환경농산물 생산 질서를 확장함으로써 수요자 선호에 부합하는 고품질 농산물 질서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 시점에서 세계 최고의 유기농 국가인 쿠바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쿠바는 1990년 이전까지 농작물 또는 그 원료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식량의 50%를 들여오던 전형적인 식민지형 농업국가였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와 함께 치밀한 '도시농업계획'을 통해 유기농법을 실천한 결과 불과 10년 만에

에 쿠바 쌀의 65%, 채소의 46%, 과일 38%, 뿌리작물의 13%를 유기농 방식으로 생산해 식량위기를 극복했다.

자립적으로 지속가능한 쿠바의 유기농업을 나라를 먹여 살리는데 성공한 훌륭한 도구인 동시에 수백만 달러의 외화를 아껴준 보배로서의 진가를 지금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지난 90년 쿠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26%에 불과한 식량자급률은, 1년 중 9개월 동안 수입농산물을 먹는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더욱이 쌀을 제외하면 자급률은 5%를 밑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친환경농업 수준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민간차원에서 발전돼오던 친환경농업은 지난 97년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기는 했으나, 지난해 현재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농산물 총생산량의 2.7%(유기농산물은 0.2%)에 불과하다.

생산기술의 미검증, 불합리한 가격구조, 소비자들의 인식부족, 유통시스템의 미비 등 친환경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도 하나둘이 아니다.

그러나 농업인 뿐만 아니라 정부·유통업자·소비자 등 농업시스

템에 관련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면 개발에 따른 위기를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다.

특히 친환경 인증면적의 확대와 함께 친환경영양 메뉴얼의 체계화,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도시소비자와의 자체결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2004년부터 '친환경농업 육성'을 도정 핵심정책으로 정하고 오는 2009년까지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을 전체 경지면적의 30%(9만8천ha)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인증면적은 인증면적은 2만9천431ha로, 이는 전국 인증면적의 39.2%를 차지한다.

친환경 영농 체계화

농민 김모(46·장성군 장성읍)씨는 "친환경 인증면적의 확대는 우리 지역 농산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인증면적보다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업경영체를 구축, 고령농업인들이 쉽게 영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농산물 포화상태에 대비해 체계적인 판로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김호산씨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선 출마 포기

강도석 광주시의원 후보 12번째 무소속 도전

4·25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했던 김호산(43) 예비후보가 10일 출마 포기를 선언했다.

김씨는 이날 전남도의회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정부패한 기득권 정치세력에 대항해 농어민의 삶과 목소리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현정정치, 새로운 정치를 해보고 싶었지만 기성 정치권의 벽은 높아 보궐선거 출마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한 "기성 정치권의 정략과 명분 및 절차를 무시한 비민주적 전략공천, 부정부패로 얼룩진 인사의 세몰이 등 구대정치가 무안·신안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강도석(52)씨가 12번째로 선거에 나섰다. 한민족통일문제연구소 이사장으로 있는 강씨는 오는 25일 치러지는 광주시의원(남구) 재선거 무소속 후보로 광주시 남구선관위에 10일 등록, 도전장을 내밀었다.

강 이사장은 지난 1988년 남구가 분구되기 전인 서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나선 후 1991년 시의원, 1992년 국회의원, 1995년 남구청장, 1996년 국회의원, 1997년 남구청장, 1999년 남구청장(재보선)에 무소속으로 각각 출마했다. 그는 또 2000년 국회의원, 2002년 구청장, 2004년 국회의원, 2006년 구청장 후보로 나서는 등 지금까지 무소속으로만 총선 4차례, 지방선거 7차례 등 모두 11번 도전했다가 실패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市 산하 기업 입찰 참여했다가 위약금 물어

4·25 재·보궐선거 광주시 남구 시의원 민주당 후보로 선정된 김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가 실적을 위조해 광주시 산하 공기업 입찰에 참여했다가 위약금을 청구 당한 사실이 드러나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민주당과 광주도시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김모 후보가 대표이사로 있는 청소용역업체인 D사는 지난 1월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실시한 지

하철역사 1구간 청소 및 방역 용역 입찰에 참여해 업체로 선정됐으나 실적 위조 사실이 추후 발각됐다. 당시 낙찰 금액은 4억5천800만원으로 D사는 2005년 청소 실적을 위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공사는 D사에 대해 업체 선정 취소와 함께 위약금 9천178만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관계자는 "공기업이 실시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실적을 위조한 것은 공문서 위조로, 이러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시의원이 될 경우 피감기관인 시 산하 공기업에 어떻게 감시할 수 있겠느냐"며 공천 취소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지난 2002년 민주당 광주시당 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 회사를 매각했는데 서류상으로 대표이사로 남아있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다"며 "왜 이런 상태가 됐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이며 이후 회사 경영에서 발생한 일은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주)조이트래블

www.joy-travel.net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5가 57번지 2F 대표전화 (062) 234-3222

기억에 오래도록 간직될 가슴 설레이는 여행... 매년 1만명 이상의 고객들께서 조이트래블을 통해 여행을 다녀오십니다. 해외여행 보증보험 5억원 가입업체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세계 어느 곳을 여행하시더라도 조이트래블과 함께라면 편안함과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래블



고객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가짐과 다년간 축적된 독특한 노하우로 매년 1만명 이상의 고객들께서 조이트래블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저희 조이트래블은 전문 여행사와의 업무 제휴와 현지 직영사무소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새로운 여행문화를 선도하여 고객분들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곳을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해외여행... 앞으로 더 저희 조이트래블은 여행서비스 수준을 더욱 발전시켜 고객 한 분 한 분마다 진한 감동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조이트래블 대표이사 최금환

Best of best! 국내 최저가 일본 규슈 온천 3박4일

전일정 노퍽! 노퍽! 279,000 광주 출도착 기준 여행자 보험 1억원 가입 출국세 및 기타 부대비용 포함

Table with columns for Day, Time, and Itinerary details for the Best of Best! Japan trip.

일본 추천상품1 통나무 콘도와 일본 전통 온천호텔과의 만남 4일 319,000

추천상품2 일본 전통 온천호텔을 체험하는 절호의 찬스!! 4일 349,000

추천상품3 팬스타와 함께하는 오사카/나라/교토 5일 469,000

추천상품4 '동화 속 느낌, 튜올림과 함께' 하우스텐보스 + 아사팜 4일 449,000

중국

추천상품1 상해/소주/항주/주자각 KE 3일 399,000

추천상품2 장사/항주/장가계(원가계) KE 5일 859,000

추천상품3 심양/백두산 499,000

추천상품4 장사/장가계(원가계) ZH 4일 590,000

추천상품5 장사/장가계(원가계) ZH 5일 690,000

유럽

추천상품1 전통풍경 서유럽 6개국 OZ 12일 3,200,000

추천상품2 품격상품(1급) 서유럽 6개국 KE 12일 3,100,000

추천상품3 품격상품 서유럽 6개국 LH 11일 2,220,000

추천상품4 품격상품 오픈프라이 1급호텔 CX 12일 2,390,000

남태평양

추천상품1 호주/뉴질랜드 남북섬 (특급호텔) KE 10일 1,990,000

추천상품2 호주/뉴질랜드 남북섬 (특급호텔) OZ 10일 1,890,000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인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 상품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별 가입보험금(1억원, 국내여행5천만, 관광진흥회가입),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철/버스/전차. * 경비: 호텔, 식사, 전철/버스/전차. * 최소승인인원 15명 이상. * 상가(도금)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약시 계약서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래블